

**열왕기상 15.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다툼 (왕상 15:1-34)**

**들어가기**

본 장은 남유다의 ‘아비얌’ 왕과 그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아비얌’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아사’는 ‘다윗’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길을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으나, 이년 만에 ‘바아사’의 반란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아사’는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며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동족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1.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얌’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8 절)**

- 1) ‘아비얌’은 예루살렘에서 3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2 절)
  - ‘아비얌’이 남유다의 왕이 된 해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
  - ‘아비얌’의 어머니는 ‘마아가’였고, 그녀는 ‘아비살롬’의 딸이었음!
    - 우선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의미함.
    - 그런데 역대하 13장 2절은 ‘아비얌’의 어머니는 ‘우리엘’의 딸이라 기록됨.
      - 학자들 ->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삼하 14:27)이 ‘우리엘’과 결혼해 낳은 딸!
      - 따라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로 보아야 함. (K-eil & Delitzsch Commentary)
    - 곧 ‘르호보암’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였던 것!
      - 이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을 것이라고 추측함.
      - ‘르호보암’은 일찍부터 ‘마아가’의 아들 ‘아비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결심했음!
- 2) ‘아비얌’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3 절)
  - 비록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은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음을 깨닫게 됨.
- 3) 아무튼 ‘아비얌’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지켜주셨습니다.
  - 이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 (4-5 절)
  - 참고로 북이스라엘이 250년동안 무려 아홉 왕조의 교체가 바뀐 동안, 남왕국은 약 400년 동안 ‘다윗’ 왕조의 통치가 지속되었음!
  -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신 증거!
    - 예: 삼하 7:14-16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 4)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6-7 절)
- 참고로 역대하 13 장은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의 두 번의 큰 전투를 상세히 소개함.
    - 이 전투에서 ‘아비얌’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함!
    - 이로 인해서 남왕국의 경계는 ‘벵엘’ 북쪽 ‘여사나’ (Jeshanah) 지역까지 북상하게 됨!!
    -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기력은 쇠하고, 남유다의 평안과 부흥의 시대가 제공됨.
      - R.D.Patterson : 이것은 ‘아비얌’의 아들 ‘아사’를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 5) ‘아비얌’은 왕이 된지 3 년만에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3 대 왕이 되었습니다. (8 절)
- 어떤 학자들은 ‘아사’란 이름의 뜻이 ‘치료자’라 주장함(Gesenius) - 그러나 분명치는 않음.
  - ‘아사’ 왕은 제위기간 초기 구체적인 종교개혁을 실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걷고자 노력하였음!
  -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친 ‘아비얌’이 불과 3 년 밖에 왕좌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그보다 경건했던 그의 아들 ‘아사’의 길을 빨리 열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함. (Matthew Henry).

## 2. 남유다의 3 번째 왕이 된 ‘아사’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9-24 절)

- 1)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 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9-10 절)
-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0 년이 되던 해였음.
    - 참고로 이는 ‘아비얌’이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3 년이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듯 보이거나 이것은 달수로 계산하지 않고 년 수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 오차일 뿐.
  - 특별히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했음!
    -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신앙적, 정치적 중심이란 사실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
- 2)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
- 앞에서 이미 ‘마아가’는 선왕 ‘아비얌’의 어머니로 소개됨! ->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대부분의 학자들
    - 여기서 사용된 ‘어미니’란 히/원 ‘엠’은 유대 사회에서는 종종 ‘할머니’의 의미로도 사용.
      - 그래서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은 이것을 ‘할머니’로 해석했음!
    - 특별히 당시 ‘마아가’는 아들 ‘아비얌’이 일찍 죽자, 상당 기간 동안 손자 ‘아사’의 뒤에서 ‘태후’로써 섭정을 하면서, ‘아사’의 정치적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함.
- 3)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였습니다. (11-15 절)
- ‘아사’ 왕이 펼친 3 가지 경건한 정책들
    - 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파괴함!

- ②.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신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고, 태후의 위를 폐하며 일벌백계로 삼았음!
  - 참고: 기드론 시냇가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약 5Km의 골짜기로 이곳은 ‘솔로몬’ 말기 왕실의 우상숭배가 심각하게 행해지던 신당들이 몰려 있던 장소였다고 함.
- ③.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와의 성전에 드렸음.
  - ‘성별한 것’ 히/원 ‘카드쉐이’란 말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것' 이란 의미.
  - 역대하 13-14 장의 기록 -> ‘아사’ 왕은 부친 ‘아비얌’이 ‘여로보얌’과 싸워 취한 전리품과 자신이 ‘구스인’들과 싸워 취한 전리품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성전에 제물로 바쳤음.

▪ 그러나 남유다에 있던 산당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 두었음!

○ Why?

○ Matthew Henry's Commentary, Vol.II, p.658

- 이때까지 산당을 심각한 우상숭배의 처소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것!
-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냄.
-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이와 같은 산당 제사는 폐하는 것이 당연! 그런데 결국 산당을 남겨 둬으로써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음!
- 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작업은 훗날 ‘요시아’ 왕 때 이뤄짐! (왕하 23 장 4-20 절)

4)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6-21 절)

-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남유다를 공격하여 ‘라마’를 건축하였음! (17 절)
  - ‘라마’는 히/원 ‘높음’이란 뜻으로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 북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음. - 오늘날 ‘엘람’ (Er-Ram) 지역을 말함.
  - 그런데 당시 ‘바아사’가 이 라마를 점령하여 요새로 삼고 국경을 관리했다는 것은 이전에 ‘아비얌’이 북쪽 ‘여사나’까지 빼앗았던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찾았음을 의미!
  - 곧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졌고,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
- 이때 ‘아사’ 왕은 성전의 은, 금을 다메섹 ‘벳하닷’에게 보내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
  - 특히 19 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당시 남유다는 다메섹의 ‘벳하닷’과 일종의 정책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됨!
  - 그래서 성전의 은, 금을 급히 보내며,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와 같은 ‘아사’ 왕의 전략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됨!
    - 그래서 남유다로 향하던 ‘바아사’가 급히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20-21 절)

5) 다메섹 ‘벳하닷’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사’ 왕은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바아사’가 ‘라마’에서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다 챙겨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바’와 ‘미스바’를 새롭게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22 절)

- 곧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것들로 남유다를 위한 국경의 성읍들을 새롭게 요새화한 것!
- 이때 새롭게 보강한 성읍들이 ‘게바’와 ‘미스바’였음.
  - ‘게바’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라마’의 동쪽, 예루살렘에선 북동쪽 9.6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 -> 이후 남유다의 전통적인 북쪽 경계성이 됨!
  - ‘미스바’는 ‘바라보다, 정탐하다’란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한 고지대.
    - ‘게바’와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남유다의 전통적인 북쪽 경계성이 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당시 ‘아사’ 왕의 계약은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었음!
- 그러나!! 종교적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시 50:15)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매우 실패한 계약이었다는 것!
  - 역대하 16 장 7-8 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 동족을 치게 한 ‘아사’를 강하게 책망하셨음!
- 특별히 본문 22 절에서 주목할 원어적 표현 하나 ->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 ‘모면하지 못하게’에 해당하는 히/원 ‘나키’ 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으로, 당시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강제동원령이었음을 의미함!
  - 이때부터 ‘아사’ 왕의 통치는 점점 더 포악하게 변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 참고로 역대하 16 장 10 절의 증언을 주목!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6) 이후 ‘아사’ 왕은 늙고 말에 발에 병이 들어 죽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23-24 절)

- ‘아사’의 발에 난 병?
  - 여기서 사용된 ‘병’의 히/원 ‘하라’는 ‘문질러 없애다’는 뜻 -> 심각한 피부병을 의미.
  - 참고로 역대하 16 장 12 절을 보면, 이때 ‘아사’ 왕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더 믿고 찾았다고 기록함!
  - 곧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처음 마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어져 갔음을 확인하게 됨!

3.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2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25-32)

1)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25 절)

- ‘여로보암’의 길
  -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함부로 제사장을 세워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
- 그와 같은 길을 따른 ‘나답’은 통치 2년만에 단명하게 됨!

2) ‘나답’의 통치 2년에, 잇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27-30 절).

- '바아사'란 이름의 뜻은 '바알이 듣는다'는 의미!
  - 곧 그 이름이 뜻하듯 ‘바아사’의 집안은 우상 숭배에 몰두한 집이었던 듯!.
  - 그런데 그 또한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됨!
  - 그로 인해 훗날 ‘여로보암’이 받았던 똑같은 징벌을 받게 됨!
    - 그의 아들이 왕이 된지 2년에 집안에 멸족 당하게 됨. (왕상 16 장 8-9 절)
  - 참고로 학자들은 ‘바아사’가 ‘나답’의 군대장관이었을 것으로 추정.
  
- 이때 주목할 것은 그가 잇사갈 출신으로써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왕조를 쳤다는 것!
  - 우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음
    - >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 요셉의 아들이자 한 어머니의 후손!
    - > 나아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
  - 그러나 이번에 잇사갈 출신의 ‘바아사’는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것!!
    - > 따라서 이제는 어느 족속에서든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김!
    - >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지파간에 본격적인 분열과 다툼이 발생되기 시작함.
  - 참고로 일찍이 ‘여로보암’은 백성 중 아무나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였음!
  
- ‘바아사’는 ‘나답’을 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함!
  -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

4. ‘바아사’ 왕은 24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32-34 절)

- 그 동안 남유다의 ‘아사’ 왕과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킴!
- ‘바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인도하였음!

5.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6. 중보기도 나눔